

육계 계열화 사업, 결코 잘못된 것 아니다 농가불만은 항상 존재,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본지 김한웅 부장

최근 육계 계열화 사업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있다 보면 이걸 정말 잘못돼도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30여년간 지속되며 육계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온 육계 계열화 사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육계사육업 자체를 공공사업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계열화 사업은 통합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괄 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육농가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가축 계열화 사업자란 계열화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가축사육농가와 계약에 의해 종자, 사료, 경영지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계약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받아 도축·가공하여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일부 종계업자를 비롯하여 계약사육이 아닌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생산물의 판매와 관련해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계열화 사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은 종종 있어 왔으나 계열화 사업의 근간을 흔들려 놓고자 계열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사육농가를 착취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대목이다.

계열주체든 계약사육농가든 간에 서로 잘 살자고 하는 일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고 사업을 영위해가고 있는 만큼 상호간의 불협화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들의 주장대로 사료나 병아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공급했던지 아니면 사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닭이 잘못되면 농가와 계열주체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계열주체가 망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문제가 있는 원자재를 고의로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오해와 앙금을 풀어내야 할 때가 아닌가 판단된다.

계열주체도 나름대로 농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다. 경영을 해야 하는 사업체로서 농가들의 주장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부분에서는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모두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농가들과 계열주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1차적으로 계열화 사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계열화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또한 병아리 등 원자재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종계·부화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도 생산단계, 유통단계 등 각 단계별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묘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현재로서 시원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통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열화 사업은 현재 농축업계가 추구해 나갈 마지막 보루임에는 틀림없다. 형태가 어떻든 그것은 방법론일 뿐 궁극적으로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농축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이다. <K>